

아르메니아, 러-벨라루스-카자흐스탄 관세동맹에 신규 가입

- EU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정치·경제적 대응 -

2013.11.18(월)

모스크바사무소

- EU 외연확대 위해 아르메니아에 꾸준히 FTA 제안
 - 유로존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교역확대를 위해 외연을 넓힐 계획을 계속 추진
 - 미국, 일본 등 경제대국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약소국에도 FTA 체결을 제안
 - EU의 노력으로 지난 7월경 EU는 아르메니아와 FTA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
 - 카를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7월 24일 아르메니아와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면서, 11월 EU 정상회의에서 FTA 체결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.
 -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아르메니아가 EU 가입 대신 '관세동맹' 가입을 밝히면서, EU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주도권 상실
 - EU에 의하면 러시아가 주도하는 '관세동맹'(Eurasian Customs Union)은 EU 체제와 '양립할 수 없는' 것이라고 밝히면서 '관세동맹'을 시발점으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'유라시아경제연합(EEU)' 창설을 견제해왔으나,
 - 아르메니아는 EU의 이런 노력에도 결국 러시아 주도 '관세동맹'을 선택하겠다고 선언, EU의 FTA 체결 확대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

- 아르메니아, EU와의 FTA 체결 대신 러시아가 이끄는 '관세동맹' 참여
 -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쥬 사르그샨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9월 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, 러시아-벨라루스-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
 - 또한 관세동맹 가입뿐만 아니라, 아르메니아는 구소련권의 경제연합 '유라시아경제연합(EEU)' 창설을 위한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도 적극 참여 선언
 - 아르메니아 관세동맹 참여의사 표명은 푸틴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
 - EU에 대항하기 위해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설득, 유도하는 푸틴이 EU의 CIS권 진출을 막아낸 점이 내부적으로 높이 평가
 - 아르메니아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의 절반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
 - 실제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, '12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고, 러시아의 대 아르메니아 투자금액은 30억 달러 수준
 - 아르메니아의 관세동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는 천연 가스공급가격 인하와 기타 무역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
 - 이런 방법은 기타 CIS권 국가에도 유효할 것이며, EU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
-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, 러시아와의 경협체계가 벗어나기 어려워
 -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 가격에 혜택을 준다고 제안하면, 구소련 국가들은 EU와의 선택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 매력적
 -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철회는 러시아의 통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, 우크라이나와 같은 EU 가입 추진 CIS 국가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